

## 人事의 말씀

올 해만은 제발 큰 불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火災件數나 人命被害가 현저하게 줄었으면, 하고 期待를 해 봅니다.

우리는 火災없는 福祉社會建設이라는 協會 本來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全力投球를 하고 있다고 自負해 보기도 하지만 火災件數는 여전히 줄어 들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 禁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火災豫防에 대한 一般的인 意識이 차츰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은 否認하지 못할 때 또 一末의 希望을 가져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조심의 生活化」, 이것은 바로 火災를 막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實踐에 못 옮겨 莫大한 被害를 입는 경우가 許多하며 이 被害는 個人的인 被害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國家的으로도 커다란 損害라는 것을 생각할 때 本協會의 豫防活動責任이 아직도 莫重함을 痛感하는 바입니다.

國民의 生活水準이 向上되고 生活方法이 多樣해 지면서 火災는 필연적으로 많이 發生하기 마련이지만 文明의 利器들을 속속 開發, 우리의 生活를 편하게 만든 人間의 頭腦가 아직 이에 相應하는 火災豫防에 대한 보다 次元 높은 研究開發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政府當局이나 本協會는 물론이요, 많은 關係者들이 火災豫防에 대한 갖가지 方案을 마련하기에 부단한 研究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未久한 장래에 보다 有益하고 效率的인 方案들이 반드시 나오리라고 믿으면서 그 날을 위해 本協會는 技術開發에 더욱 拍車를 加할 것입니다.

一般的으로 大型火災가 한번 發生하면 온 國民의 耳目이 集中되는 듯 하여 警覺心이 提高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일이 지나면 精神이 解弛되어 이를 忘却하는 것이 우리의 現實입니다.

잠깐의 放心이 큰 火災를 誘發한다 함은 近來 우리 주변에서 發生하는 火災가 主로 公休日 週末 등 마음이 解弛되는 때에 發生하고 있음을 보아도 能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火災豫防에는 잠깐의 放心도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男女老少, 職業, 年齡에 關係없이 「불조심의 生活化」에서만 可能한 것입니다.

또한 火災는 철저히 막아야 하지만 萬一의 火災로 被害를 입게 되면 그에 대한 補償對策은 오직 保險의 적극적인 活用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保險制度에 대해 一般의 認識이 높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火災豫防을 위해 法律이 우리에게 부여한 各種業務를 充實히 遂行할 것을 재 다짐하면서 이 冊子가 여러분의 防災活動이나 保險制度를 理解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感謝하겠습니다.

理事長 吳 琳 根